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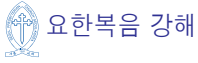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각 사람을 위한 빛 I

(요 1:9)

이종윤 원로목사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불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 발견은 인류 역사를 변혁시킨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인간들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바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퀴의 발명은 인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발명과 발견이 소중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 혼란이 오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누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1.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엘코메논’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왔나니’(was coming) 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Jesus was coming”입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 이 세상에 오는데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오늘 각각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쳐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감사 가운데 제일 큰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에서 헤매야 했을 것이고, 이 빛이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빛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 참 빛

요한은 세상에 온 빛은 ‘참 빛’이라고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될 텐데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 빛은 거짓 빛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과 대조시킬 때 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은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비록 다른 용어로 나왔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거짓된 것도 아니고 바른 것이라는 말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문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자들

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는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있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른 것은 ‘참 빛’에 어느 것이 형용사로 되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번역이 주는 내용은 주어가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빛이 많습니다. 우리가 빛 때문에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눈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빛, 거짓에 대항하는 참빛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빛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빛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2) 세상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80번이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22번 나옵니다. 세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이 있고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세상도 있고 악한 것을 말할 때에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이 ‘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게’는 단순히 ‘땅, 영토’를 말합니다. 다음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이 세상의 시간적인 세대’ 혹은 ‘시간적 생애’를 말합니다. ‘세상이 참 짧구나’ 할 때는 ‘시간적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라는 단어 중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는 본문에 나타난 ‘코스모스(Cosmos)’입니다.

코스모스(Cosmos)는,

첫째, ‘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큼니까? 우리 중에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주란 로마서 1:20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4:8에 나타난 cosmos라는 이 단어는 ‘땅 혹은 지구’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 1:29과 4:42에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주민,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주,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참 빛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당회, 장기간 교회 불출석 교인들에 대한 교적정리를 결의하다

당회는 지난 7월 10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장기간 교회에 불출석 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에 대한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이는 1991년 교회 설립 이후 당회가 교구목사에 게 위임하여 교적 상에서만 분류, 정리하여 오던 것을 정식 당회결의절차를 통해 법적, 행정적 정리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구목사들이 확인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교회분쟁으로 예배가 분리되기 이전인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교회에 제적요청 의사표

시를 한 후 교회를 떠난 후 사실상 제적상태에 있던 강경구 등 6,511명(최근까지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교인들 포함)에 대하여는 정식 제적처분을 결의하고, 동시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치 않고 있는 가정숙 등 5,560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이를 선포한 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후보 삼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영어예배부 : 7월 20일(토), 베델하우스

유년·초등·중등·고등부 : 7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타운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어제 7월 13일(토)은 우리교회의 가장 어린 영혼들인 영아·유아·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가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 3:2)"라는 주제로 김은숙 전도사의 지도하에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더운 날씨와 좁은 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교역자,

교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어예배부가 7월 20일(토) 베델하우스에서, 유년·초등·중등·고등부는 7월 25일(목)-27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덥고 습한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침을 얻는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유년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 23:3)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월 15일(목) -17일(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예배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7월 20일(토)	베델하우스	One Body of Christ (1 Cor 7:18-27)	김의창 목사

2019 농·어촌전도대 발대식

오늘 찬양예배 시

- 7월 14일(주)~18일(목) :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

도시화 추세속에 날로 열악해져가는 농·어촌의 교회를 위해 우리교회는 새교회를 개척하는 일보다 전국 곳곳에 이미 세워져 있는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농어촌100교회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 농·어촌 교회 지원구상이 나온 것은 우리교회 설립초기인 1994년 당회원 세미나였고 이후 '농어촌100교회운동' 제안을 당회가 수락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됐다.

또한 교회는 '농·어촌100교회운동'을 진행하면서 결연 교회를 가운데 한곳을 선정하여 여름철에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했다. '농·어촌전도대'는 결연 교회가 있는 마을을 돌며 축호전도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으며, 의료, 이·미용 등의 분야

별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 등의 행사로 결연교회의 지역 복음화를 도왔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교회의 '농·어촌100교회운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올해도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한다. 사역지는 지난 5년간 지원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로 오늘 아침 먼저 출발한 의료봉사팀, 지원팀, 축호전도팀, 이미용팀, 만나팀, 여름성경학교팀, 이상 총 6개 팀 50여 명이다.

이들의 사역과 건강, 말씀을 전하실 교역자들, 주민들의 마음 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수·박한옥 한길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7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7월7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7월14일: 고성의료 선교로 상담 없음
- 7월21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7월28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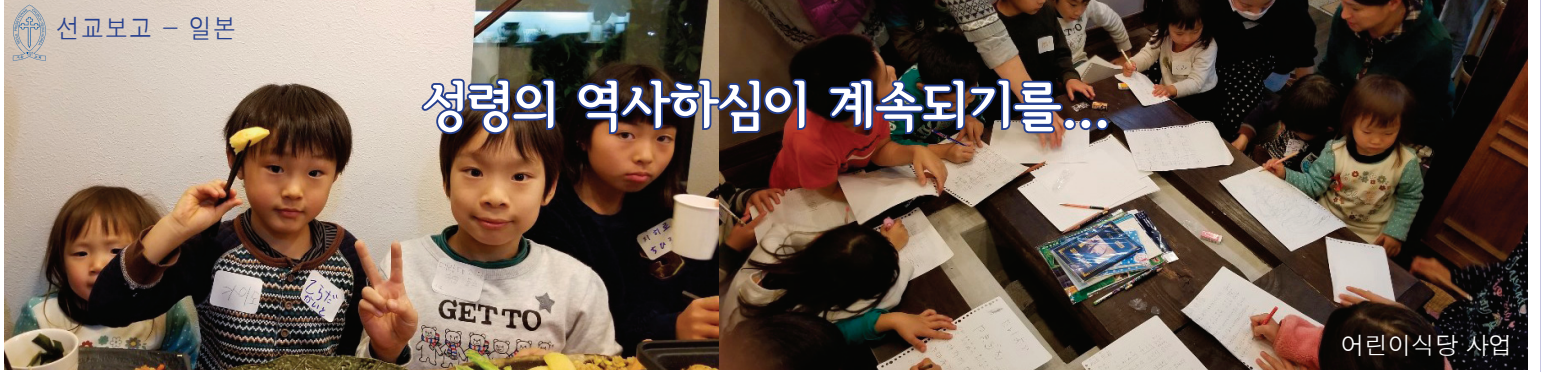



Bus Metro Walking

B.M.W. 운동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기를...



어린이식당 사업

일본 동경에서 선교 보고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서울교회와 원로목사님과 여러분들 위에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월 중순인데도 이상기온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또한 장마가 시작되어 날씨 변동이 심합니다.

동경신에교회는 미국선교사가 개척한지는 120년이 넘었지만 일본기독교단 동경신에교회로서는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1부, 2부, 3부를 합쳐서 40~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주일예배 인원 변동이 심합니다. 지역은 동경도 신주쿠 와카마츠에 위치하고 주택지역이며 주변에는 동경여자의과대학병원과 동경한국학교가 있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경한국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약 1,400명 정도 있어서 주변의 한국 부모들과 한국인 가게들을 방문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과 일본인 가게들도 방문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1. 2019년 4월 28일 주일예배 후 교회총회에서 정식으로 부임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5월 동경교구(노회)총회에서 동경신에교회 목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임식은 교회와 교구가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 찬양예배는 음악을 하는 성도에게 본당을 대여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찬양예배를 동경신에교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시 30분~ 6시 30분 (월요일~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기도하게 하셔서 현재 3명에서 4명이 새벽기도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하여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도들이 지역을 전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회사역 외에 노숙자 협력 사역, 어린이식당 협력 사역, 장애인 협력 사역, 북클럽 사역, 일본에 1,000개의 무목교회(無牧教會, 목사가 없는 교회)에 한국선교사를 파송하는 무목선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경에 훈련센터가 있으면 더욱 힘있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자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비자문제와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 언어훈련, 현지(일본)교회 협력사역을 통해 일본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바현에 1000평의 야채밭과 이바라기현에 자연양계장과 협력하여 선교사들의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목교회 사역은 나라현에 부부목사님을 파송하여 나라남부교회가 15명~20명정도의 성도님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사모님이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서 피아노, 색소폰, 성악을 가르치며 주일에는 그들이 악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백석그리스도교회에 젊은 부부목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무목교회에 파송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훈련된 선교사를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로 파송하여 무목교회를 부흥시키면 일본의 8,000

개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역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가 이루어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일본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일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일본과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서울교회와 여러분들께 하나 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이 역사하심이 계속 될 것도 믿습니다. 저희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어진 사역을 섬기겠습니다.

기도제목

1. 교회건물(선교센터) 구입(건축)을 위하여
2. 어린이식당 협력 사역을 위하여
3. 장애인 협력 사역을 위하여
4. 노숙자 협력 사역을 위하여
5. 일본성도와 일본선교사들의 북클럽 사역을 위하여
6. 1,000개의 일본 무목교회 선교사 파송 훈련과 국제사랑센터 선교사 자립 사역을 위하여
7. 동경신에교회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새벽기도와 한국어예배의 협력자들과 부흥을 위하여
8. 아이들의 신앙과 건강과 학교생활과 저희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9. 일본기독교단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전도와 선교하도록

일본선교사 여창범·현미순 드림



- ① 어린이식당 사업
- ② 무목(無牧)교회와 호스피스 사업
- ③ 일본노숙자 대상 선교사역
- ④ 일본성도와 선교사들을 위한 북클럽 사업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사랑부는 언제나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서울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첫 테이프를 끊으며 지난 7월 6일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랑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부를 지도하시는 심우진 목사님은 이 날 출애굽기 14:13-14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애굽왕 바로에게 열 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 하셨다. 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되자"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날 공과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

이를 바다위로 내미니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이 저마다 재밌는 그림을 그려서 교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놀이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발을 묶고 달리기 릴레이 경주, 2인 1조 장애물 경기, 달려가서 입으로 과자 따먹기 등을 했습니다. 이는 주로 협동심을 유발하기 위한 놀이였는데 학생들은 취지에 맞게 침착한 모습으로 잘 협력하여 놀이를 재밌게 했습니다. 또 돌성경 앞에서 물총으로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놀이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학생들이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방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더운 날씨에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날라오시고, 또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각각 호박샐러드와 과일컵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더 없이 행복했습니다.

늘 사랑부에 이 같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도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성심으로 사랑부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끌며 교육하겠습니다.

동 정

- 금주의 식사: 김금재 집사·이미영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고등어조림 배추겉절이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 농어촌 전도를 통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한일 간의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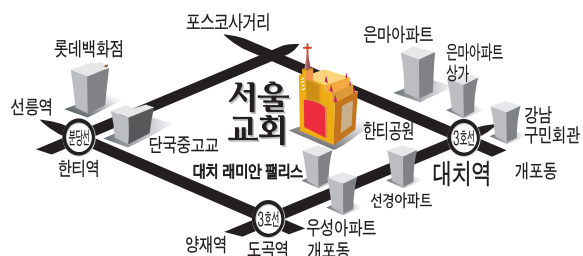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15일	월	잠 14-16		출 33-38	
7월16일	화	잠 17-19		출 39-40, 레 1:1-5:13	
7월17일	수	잠 20:1-22:16		레 5:14-10:20	
7월18일	목	잠 22:17-24:34		레 11-15	
7월19일	금	잠 25-28		레 16-22	
7월20일	토	잠 29-31		레 23-27	
7월21일	주일	전 1-6		민 1-3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